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일반 논술

- 경영경제계열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5. 답안지의 첫째 줄부터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6.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7.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8.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9. 답안은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에만 작성하십시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CHUNG-ANG UNIVERSITY

[경영경제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조선 후기 문인 화가인 공재 윤두서의 <윤두서상>은 뛰어난 관찰력과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便是他人].”라는 정통 초상화론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안면의 윤곽선과 수염의 필선은 정교하면서도 힘이 넘친다. 그런가 하면 정면을 응시하는 눈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고, 그 뒤에는 선비다운 기개가 충만해 있다.

자화상의 화면 구도는 이채롭다. 보통의 초상화가 전신이나 상반신을 그리는 데 반해, 이 작품은 얼굴만 강조하여 그린 것이다. 배경은 그냥 여백인 채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화면에 빈 곳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자람을 뜻하지는 않는다. 화면의 빈 곳은 빈 곳이 아니라 무한한 생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실적으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에게 귀가 없다는 사실은 놀랍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바람에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고,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라져 나갔다. 대체 이런 그림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 그림은 조선 시대 유교 윤리나 보편적 미감에서 벗어나 있다. 사대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일부를 떼어 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두서는 목과 상체와 귀, 그리고 탕건을 온전히 그리지 않고 얼굴만을 선택해 자신의 초상화를 완성한 미학적 실험을 감행했다. 말하자면 윤두서는 기성의 회화 전통과 차별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자화상 가운데 윤두서의 자화상이 표현 형식이나 기법에서 특이한 양식을 보이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나) 사람은 숙명적으로 부분적인 지식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여 이를 신경 계통에 전달하는데, 이때 이들 감각을 모두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한 후 추상화하여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계의 취사선택은 자동적으로 완전하게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경계 하나하나의 추상 작용입니다.

듣는 이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소리는 음파가 되어 귀에까지 옵니다. 눈으로 듣고자 하여 매우 열심히 말하는 이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으면, 말하는 이에게서 오는 자극은 광파가 되어 눈까지 옵니다. 그러나 광파도 음파도 거기서 멈추고, 그 후에는 신경계를 통하여 대뇌에 전달되어 비로소 우리들은 본 것, 본 일, 들은 것, 들은 일을 의식하는 것, 곧 아는 것입니다. 신경계에서 추상하는 일이 끝난 후에 대뇌에서 비로소 의식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추상화 작업을 통해서 대뇌의 정보처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음파는 결코 귀에서 그대로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귀 그 자리에서 멈추고는 자극이 되어 신경계에 전달되어 대뇌로 갑니다만, 그 사이에 추상 작용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추상 작용이 행해진 다음에 소리로서 자기가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하였을 때는 이미 자신

의 여과기(濾過器, filter)에 걸러지고 만 것이어서, 그 물체의 소리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여과기를 통하여 의식된 소리이기 때문에 벌써 자기류(自己流)가 되고 만 것이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듣는 이는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폰드레가 박사님이 강의하는 교실에서 환등기가 교수님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뒤의 하얀 벽 쪽을 향해 의자를 돌려놓고 교수님이 환등기를 비추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웃으시며, "환등기가 책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환등기라는 물체의 자극을 광파에 의하여 받게 되면 곧 바로 뒤의 하얀 벽 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look'이 아니고 'look for'인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들려오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 총통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젊은 친구, 문명은 고귀함이나 비장함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세. 그러한 것은 정치적 비능률을 나타내는 징후일 뿐이야. 우리처럼 적절히 조직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고귀하고 영웅적이 될 기회란 있을 수 없는 걸세. 그러한 계기가 발생하기 전에 여건이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지 모르는 경우이거나 저항해야 할 유혹이 있거나 쟁취하거나 방어할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틀림없이 고귀함과 비장함도 어떤 의미를 가질 거야. 그렇지만 오늘날엔 전쟁이 없단 말일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일세.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조건반사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일세. 또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대체로 유쾌한 것이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충동은 모두 자유롭게 만족되기 때문에 저항할 유혹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만일 불행한 우연으로 인해 어떤 불쾌한 사태가 일어나면 까짓것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도피시켜 줄 소마가 항상 준비되어 있네. 분노를 진정시키고 적과 화해시키고, 인내하고 수난을 참도록 하는 소마가 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대단히 어려운 노력을 거치고 오랜 수양을 쌓아야 겨우 도달되는 미덕이었지. 그러나 이제 반 그램짜리 소마 두세 알만 삼키면 그러한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일세. 이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네. 그리고 우리는 또 완전한 건강을 위해 V.P.S 요법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어."

"V.P.S라고요?"

"걱정 대용 약(Violent Passion Surrogate)이란 뜻이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신체의 모든 조직에 아드레날린을 충만시키는 요법일세. 완전한 생리학적 대용물로서 강장제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전혀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야만인은 반항적으로 말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긴 침묵이 흘렀다.

야만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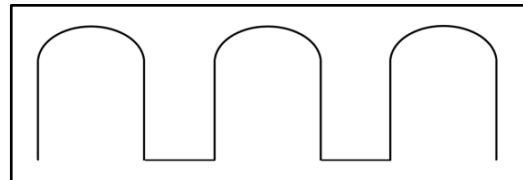
무스타파 몬드는 어깨를 추슬렀다.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가 말했다.

(라) 스키마(schema)란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 또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의 총체를 뜻한다. 예컨대, ‘삼각형’이란 스키마는 세상의 수많은 세모꼴의 형태가 종합된 하나의 규칙이며, ‘개’라는 스키마는 여러 종의 네 발 달린 개라는 동물을 상상할 때마다 따라야 할 규칙이라는 것이다.

스키마 이론은 형태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형태 심리학은 당시 행동주의 심리학이 주장하는 ‘인간 심리의 전체적인 특성은 부분들의 특성의 총합’이라는 명제에 반발하여, 사물이나 정신의 모양 또는 형태 등 통일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형태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구조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어도 내적으로 일관된 구조를 지향하려는 역동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역동적 성향이 기억의 재생 과정에서 보편화와 특수화의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형태 심리학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중 해석이 가능한 그림을 보여 주고 얼마 후 이 그림을 회상하도록 하였더니, 대부분은 그림에 대해 자신이 처음에 내렸던 판단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기억



을 변형시켰다고 하였다. 즉 그림을 ‘다리[橋]’로 지각한 사람은 이 그림을 회상할 때 보다 ‘더 다리답게’ 재생하고, ‘성곽’으로 지각한 사람은 보다 ‘더 성곽답게’ 재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의 재생 과정에서 스키마가 작용하여, 원래의 시각적 이미지는 약화되고 기억의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스키마 이론은 이후 사회 심리학자 버틀렛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는 인간의 기억과 이에 미치는 과거 경험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인들에게 생소한 북미 인디언 설화, <유령들의 전쟁>이라는 글을 영국인 피험자들에게 읽힌 뒤 시차를 달리하여 여러 번 회상시켰다. 그 결과, 원래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단순화되고 전형화된 형태로 회상되었고, 선택된 세부 사항들은 회상자의 흥미에 따라 변형되거나 아예 빠지기도 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회상한 이야기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더욱 정교화되고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게 첨가되기도 했다.

(마) 인간은 경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이다. 소비자는 소비할 상품을 까다롭게 선택하며, 재산을 늘리려고 자신의 돈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만족

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기업은 도태되며, 끊임없이 더 좋은 상품이 개발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는 승진 기회나 더 많은 보수를 얻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경제 주체는 완전한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며, 자신의 효용이나 이윤을 최적화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해관계, 즉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즉, 합리적 선택이란 가능한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한다.

(바)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이 인터넷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의 횡포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 전문 사이트들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와 사이트를 고발하고 구매를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또, 해당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토대로 경고를 의미하는 옐로 카드와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 카드를 발부해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사이트 선정의 길라잡이 역할도 한다. 예컨대 ‘사이버 소비자 센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제반 소비자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대안을 모색하며,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과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정보넷’은 최적의 상품 선택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가 상담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요즘엔 환경 보호나 저개발국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윤리적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두 상품 중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윤리적 소비자는 상품 선택 기준으로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상품이 제조되는 과정을 고려하고, 건강·환경·사회를 생각한다. 윤리적 소비자는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비윤리적 방법이 사용된다면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도 구매를 거부하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녹색 기업,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는 기업,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선택한다. 윤리적 소비자는 이전 소비자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돈을 사용한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상품을 소유하거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투표로 인식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다), (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추론해 기술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A기업은 1년 후의 경제 상황이 당해 연도 및 1년 전의 경제 상황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1년 후의 경제 상황이 호황일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년 전 경제 상황	당해 연도 경제 상황	1년 후 경제 상황이 호황일 확률
불황	불황	0.3
호황	불황	0.5
불황	호황	0.6
호황	호황	0.8

또한, A기업은 각각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한 해의 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호황	불황
수익	100억	20억
비용	10억	10억

[문제 3] 당해 연도를 2014년이라고 할 때, 2016년 A기업의 기대 이익을 구하시오. 단, 경제 상황은 호황과 불황의 두 가지 경우만 있고, 2013년과 2014년의 경제 상황은 모두 불황으로 가정한다. **[20점]**